

“봄이다, 함평 가자”

제26회 나비대축제 ‘팡파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나비날리기·함평추억공작소 황금박쥐 등 즐길거리 ‘풍성’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나비대축제 포토데이 행사.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꽃과 나비가 어우러져 봄의 설렘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함평 나비대축제’로 초대한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봄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올해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축제의 대표 나비는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특징인 ‘산호랑나비’로, 함평군의 상징인 호랑나비는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으로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을 의미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메리골드 등 30종의 다채로운 꽃 8만본과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3종 25만마리의 나비·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전 9시 ‘나비날리기’ 행사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개막 축하 공연으로 가수 박지현, 지원이의 무대가 펼쳐진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아의 나비날리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슬라이드 체험, 나비가면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매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팀)을 대상으로 매일 5회(오전 10시·11시·오후 1시30분·2시30분·3시30분) 실시할 계획이다.

잔디광장 주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나비콘서트 등 문화 공연이 진행되며, 생태습지에서는 아기사슴과 친구되기,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나비순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패리기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동의 텐트가 설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제 나비 날리기 체험이 진행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 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도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내 금강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당시 실제 함평의 생활

동물과 친구되기,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나비순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패리기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동의 텐트가 설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제 나비 날리기 체험이 진행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 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도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내 금강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당시 실제 함평의 생활

동물과 친구되기,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나비순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패리기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동의 텐트가 설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제 나비 날리기 체험이 진행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 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도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내 금강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당시 실제 함평의 생활



왼쪽부터 함평 엑스포공원 전경, 나비분수, VR체험장.

상을 축소·재현해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이곳 전시장 1층 입구 공간에는 최근 금강 상승으로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상이 자리하게 된다. 매년 봄과 가을 축제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황금박쥐상은 함평추억공작소로 이전하면서

매일 상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KT X가 함평역에 정착한다. 용산역 출발 하행선(일 3회)과 목포역 출발 상행선(일 3회)이 각각 함평역에 정착하며, 군은 함평역과 축제장(엑스포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버스

탑승객에게 함평 농산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상익 군수는 “올해 함평 나비대축제는 가족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연수기자



완도군이 최근 완도항 1부두 일대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관내 초등학교생들과 함께 치어(점층어) 1만마리를 방류했다. <완도군 제공>

‘수산인의 날’ 완도군, 1만마리 치어 방류

오늘 오후 2시 청해진스포츠크터서 기념식도

완도군은 “최근 완도항 1부두 일대에서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치어(점층어) 1만마리를 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어 방류는 17일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후원했다.

행사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삼호 수산경영인연합회장, 박희준 완도어선연합회장, 관내 초등학교생 등이 함께 했다.

또한 ‘바닷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 관내 초등학교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방류된 점층어는 서남 해역에 서식

하는 대표 어종으로 여름철 어업인의 주요 어획 품종이다.

신우철 군수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는 수산인의 날 행사를 완도군에서 개최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완도는 바다와 공존하며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만큼 수산 자원과 바다 생태계 보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17일 오후 2시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크터에서 개최된다. /완도=윤보현기자

호남119안전센터, 신청사로 새 출발

소방공무원 34명·구급차량 4대 배치

호남119안전센터가 목포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임을 다짐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16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목포시민의 안전을 54년간 지켜온 호남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식 행사에는 박홍물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정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문옥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김경숙 목포소방서여성연합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목포소방서의용소방대원 9명에게 포상 수여 대원들을 격려했다.

호남119안전센터는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면적 479㎡, 연면적 988㎡ 4층 건물로 올해 3월 준공됐으며, 소방공무원 34명과 소방펌프차, 119구급차 등 4대의 차량이 배치돼 목포시 중심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박의은 목포소방서장은 “호남119안전센터 개청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영광 불갑사 천왕문’ 국가유산 보물 지정

조선 후기 건축양식·변천 과정 등 역사적 가치 인정

영광군은 “최근 ‘영광 불갑사 천왕문’이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영광 불갑사 천왕문(사진)을 비롯해 주요 사찰의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 충남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등 9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금강문과 천왕문은 사찰에 들어설 때 만날 수 있는 산문(山門)으로 조선

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이다.

이번에 지정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증장된 것으로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포항 보경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 등이 해



당된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여러 차례 보수·이건에도 불구하고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사문(寺門)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군, 병영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21억 확보...올해 대규모 주차장 준공 목표

강진군이 생활인구가 늘고 있는 병영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에 나선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병영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계획이다.

병영시장은 반경 1km 이내 전라병영성, 한골목, 하멜기념관 등 풍부한 역사, 자연,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진의 북서부 지역으로, 지난 2020년부터 병영시장을 중심으로 폐지불고기 특화 거리가 조성됐다.

인구수가 1천500여명에 불과한 병영면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 주거환경정비와 생활 SOC 조성을 통한 문화 돌봄 복지향상 등을 통해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2024 세계김밥페스타서 ‘신안김밥’ 6종 선보인다

신안군은 16일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선보일 신안김밥 6종을 개발하고 김밥 연구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과 신안김밥연구회원들이 다양한 김밥을 만들고 그 가운데 6종을 엄선, 선정된 레시피를 공유해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한 6종의 김밥은 신안소금김밥·대과김치, 신안그냥김밥, 신안정원김밥, 신안양파김밥, 신안바다김밥, 신안홍어카츠김밥이다.

김밥은 군의 우수 농수산물인 대과, 양파, 전복, 톳, 홍어 등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세계김밥페스타에서 관람객들에게 2천원, 4천원, 7천원으로 종류별로 판매해 착한 가격과 함께 골라 먹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에서 개최된다. /신안=양홍기자

무안 청계면 “목포대 의대 유치 촉구”

23회 청계면민의 날...의대 유치 구호 제창 퍼포먼스

무안군 청계면은 16일 “지난 13일 목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청계면민의 날 행사에서 의대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산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박희준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경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계면민영회가 주최하고 청계면 기관사회단체가 후원했다.

행사는 마을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단합을 도모했으며 고고장구 공연, 민민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상(주다목하우즈 김형범 ▲지역개발상 임경심 전남새마을부녀회장 ▲장수상 정예진 ▲효행상 김명호 ▲특별상 전남지사상 정숙희 청계면도시재생추진위원회 회장 재경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계면민영회가 주최하고 청계면 기관사회단체가 후원했다.

특히 기념식 전, 모든 면민이 참여하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구호 제창 퍼포먼스가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무안=김상호기자